“돈줄 막힐라”…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고객 붙잡기

코스피 강세 속 ‘예금→증시’ 자금 쏠림 심화
연 4%대 상품 속속 등장…지수연동예금도

은행권이 잇달아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 4%대 1년만기 정기예금이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증시 상승폭에 수익률을 연동하는 지수연동예금들도 선보였다.

주식시장 활황에 정기예금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또 금리인상 신호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33%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연 3.46%)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2.69%와 비교하면 0.6%p 넘게 오른 수치다.

인천 부평제일새마을금고와 대구 달서새마을금고는 연 4.19%의 금리 상품까지 내놓으며 예금 유치 전쟁에 나섰다.

광주의 저축은행 중 가장 예금 금리가 높은 곳은 더블저축은행으로 연 3.70% 상품을 판매 중이고, JT저축은행은 연 3.67%, 스마트·페퍼저축은행도 각각 연 3.66%, 3.61%의 예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광주새마을금고의 경우 연 3.70%의 높은 금리상품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코스피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예금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99조5740억원으로 주식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말(103조5094억원) 보다 4조3764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도 같은 기간 19조2265억원이 빠져나갔다.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수신잔액도 지난해 10월 말 1119조7482억원에서 지난 3월 말 1099조4574억원으로 20조2908억원이 줄었다.

반면 자산운용회사의 수신잔액은 지난 3월 1402조5116억원으로 지난해 9월(1231조6616억원)보다 170조85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보수적인 자금 운용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유동성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1일 3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2.65%에서 2.75%로 0.1%p 인상하며 금리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를 시작으로 18~19일 KB국민은행·우리은행, 28일 신한은행이 수신금리를 최대 0.1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만기 6개월 금리는 최고 2.85%, 12개월은 최고 2.90%까지 올라갔다.

광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최고 연 3.41%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특판! 디지털예금 금리UP 이벤트’를 진행한다. 12개월 이상,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신규 가입한 뒤 만기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00억원 한도로 모집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6일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효과가 미미했는지 12일 만인 28일에 다시 금리를 올려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10%에서 3.20%로, 12개월 만기 자유적금 금리를 연 3.25%에서 3.40%로 높였다.

최근에는 원금을 보장하되 주가가 일정수준 오르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인 ‘지수연동예금(ELD)’도 출시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4호’를 출시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세부적으로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 범위수익추구형 등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이 중 상승낙아웃형은 기초자산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0.75%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코스피200 지수가 기준 지수보다 25% 초과 상승하는 경우 연 2.00%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IBK기업은행도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IBK지수연동예금(ELD) 26-1차’를 만기 1년과 6개월로 출시했다. ‘안정상승낙아웃형 6개월’은 코스피200 지수가 기준 지수보다 20% 이하 상승할 경우 연 0.5~6.3%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안정상승낙아웃형 1년’은 30% 이하 상승 구간까지 연동되며, 수익률은 연 1.5~6.0% 수준이다. 코스피200 지수가 기준 지수 대비 정해진 상승률을 초과해 오를 경우 연 0.5%와 2.5%의 수익률이 각각 확정된다.

이처럼 금융기관은 증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예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탈하자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금금리 인상만으로 자금 유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수신금리 상승은 은행들의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 부담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코스피 급등장에 중동전 여파 ‘사이드카’ 금융위기 이후 최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20차례)가 현재의 발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전체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20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전체 사이드카 총 80회의 25%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발동 횟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연간 기록(26회)에 불과 6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별로는 2월 3회, 3월 7회, 4월 3회, 5월 6회 발동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 1회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사이드카 발동이 기록됐다.

올해 들어 반도체주 중심의 증시 급등세가 본격화한 데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였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는 1996년 11월 25일, 코스닥 시장에는 2001년 3월 5일부터 도입됐다.

다만 지금의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 및 1분간 지속’ 요건이 적용된 것은 2001년 5월 이후부터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일종의 ‘냉각장치’가 발동된다.

시장 변동성 확대는 서킷브레이커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8%, 15%, 2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단계별로 20분간 또는 장마감까지 시장 전체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서킷브레이커가 2차례 발동됐다. 미국-이란 전쟁 초창기 역대 최대 코스피 하락률(-12.06%)을 기록한 3월 4일과 같은 달 9일 각각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달에 서킷브레이커가 두 번 울린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환율, 장중 한때 1520원 넘어 두 달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전날 장중 한때 1520.10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은 것은 지난 4월 2일(장중 최고가 1524.10원) 이후 두 달 만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환전소 모습. 연합뉴스

티빙, 회원 정보 유출…“구제절차 등 추후 안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이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해 회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3일 티빙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 정보는 회원 ID,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다.

티빙은 “주민등록번호,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빙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며 티빙과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티빙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피해 구제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후변화·수입 공세에 흔들리는 감자·고구마

농경연, 품종 개발·기계화 확대·계약재배 활성화 등 제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류 산업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감자·고구마 산업이 생산·유통·가공 전반에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식량작물인 감자와 고구마는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경영비 상승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봄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감자 가격이 평년 대비 281.5% 급등한 바 있다.

감자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감자튀김용 저장처리 냉동감자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내 외식·가공산업의 신규 수요 상당 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미국산 칩용 감자를 시작으로 계절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국내 감자 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연구진은 △소비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 생산 기반 정비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및 기계화 체계 개선 △감자 계약재배 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활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시, 청년창업기업 ‘맞춤 성장’ 나선다

기술고도화 자금·엑셀러레이팅 참여기업 14개사 모집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차등 지원

광주시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육성 사업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 자금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청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5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의 일환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면서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광주지역 청년창업기업이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술고도화 자금 지원 사업 6개사와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8개사 등 총 14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고도화 자금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6개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특허·인증 획득,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창업지원시설인 ‘아이플렉스 광주’에 입주한 22개 기업 외에 추가로 8개 기업을 선발해 전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추가 선정 기업을 포함한 총 30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산업계 전문가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진단과 사업모델 검증,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운영 등 체계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세무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여수센터는 지난 2일 여수세무서에서 여수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수광양항, 석면없는 친환경 항만 구축 완료

2017년부터 석면 제거공사 추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석면 해체 및 제거사업을 완료, ‘무(無) 석면 친환경 항만’이 구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수광양항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자재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추진했다.

석면은 건축물 천장재, 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해물질로 지금은 사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 내 석면 건축자재의 전면 제거를 통해 항만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안전관리와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여수세무서-소상공인진흥공단, 민생 안정 ‘맞손’

여수세무서(서장 김훈)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여수센터(센터장 김용덕)는 지난 2일 여수세무서에서 여수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수 경제의 큰 축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와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영 애로가 심각하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두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세금 애로·건의사항 상시 수집, 지원제도 홍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당면한 지역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